



여야 초월 '충남 발전' 한 목소리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확보액 6조 원 돌파 기록을 작성한 충남도가 내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양승조 지사와 나소열 정부부지사, 도·실·국·원·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이별 정책설명회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에 맞춰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건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희(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윤일규(천안병),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김태홍(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중(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우(당진),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여건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도민 생활안정과 민선7기 충남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충남도는 지역적 여건을 국가 발전의 단초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중"이라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보령선 추진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도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국가 지원이 요청되며,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조속히 지정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조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천안 종축장 부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특구와 같은 제조 혁신 거점기지 조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부남호는 서해안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연안하구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간 사업 연계 등이 필요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서산에 있는 공군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하다. 서산도시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

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중인 SOC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당진~천안(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삼교역사설치 △호남선 가수원~논산 직선고속화 등 5건이다.

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50억 원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6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1515억 원(중액) 등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및 증액이 필요한 39건을 설명한 뒤,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김성구 기자



공공기관 이전 균형·형평성 있는 배분 촉구

대전시의회, 상대적 박탈감·소외감 발생

대전시의회의장 김중천은 12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대전시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을 촉구했다.

김중천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

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에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

했다. 김정환 기자

석조문화재 지키는 천연 생물막 제거제 '스톤키퍼' 개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는 야외에 있는 석조문화재에 발생하는 생물피해를 제어·예방하기 위한 천연 생물막 제거제 '스톤키퍼(Stone Keeper)'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석조문화재는 그 규모와 재질의 특성상 대부분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온도와 습도, 비바람, 대기오염, 생물 등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석재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표면에 침착된 유기물 등이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작용하면서 생물막(biofilm)이 형성되고 석재의 심각한 표면 오염과 석재의 풍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래전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용해왔던 천연 약재 중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된 '정향(丁香)' 성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연 살생물제 '스톤키퍼'를 개발했다. 스톤키퍼는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소장 정용재가 특허 받은

'유계놀·유화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생물막 제거용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석조물의 생물풍화로부터의 보존 방법(특허 제 10-1819108호)'을 실용·보급하기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톤키퍼는 ▲ 천연 약재인 정향의 휘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 식품, 화장품용 유화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 물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 재질과 인체에 안전적인 친환경 처리약재다. ▲ 단순한 분무, 도포 처리로 생물막이 자연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대형 석조건축물과 유적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야외 석조물에 스톤키퍼를 적용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지의류(地衣類),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에 단순 분무만으로도 생물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현

재까지 열대 몬순 기후인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에도 적용한 결과, 1개월 뒤 생물체가 죽고, 8개월 뒤 자연적으로 생물막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국내·외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통해 보고한 상태이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 피해가 발생한 석조문화재의 보존·예방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석조문화재에 발생한 생물막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도구를 이용한 단순 견식 세척, 물과 함께 도구로 제거하는 습식 세척, 살생물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세척 등 다양한 세척방법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한 물리적 세척법은 암석 표면의 마모, 탈락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세척 또한 재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작업자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스톤키퍼의 개발에 붙어사는 식물군에 단순 분무만으로도 생물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현

스톤키퍼는 한국전통문화대학 교 학교기업 컨텍트(Con-Tech)에서 제조하여, 국내 석조물뿐만 아니라 석조문화재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박용관 기자

대전시-홍연성, 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

"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 자매도시로 발전 기대"

허태정 시장과 베트남 홍연성 응웬 반 풍(Nguyen Van Phong)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0월 대전시 자매도시인 빈증성에서 WTA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의 제2교역국이기도 한 베트남과의 보다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체결은 두 도시 간 교

류의향서에 합의한 뒤 꼭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협약 내용은 ▲ 경제, 과학기술, 보건 의료, 교육, 관광, 환경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추진, ▲ 지식, 정보, 기술의 적극적인 교환 ▲ 그 밖의 각종 교류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베트남 남부 빈증성에 이어 북부 지역까지 교류협력 도시를 확보하게 됐다.

허태정 시장은 "의향서 체결 후

1년 만에 약속이 지켜져 우호협력 도시로 발전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 상호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매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협약식에 앞서 시청 응접실에서 홍연성 응웬 반 풍 시장과 간단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10월 베트남 남부 빈증성에 이어 북부 지역까지 교류협력 도시를 확보하게 됐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홍연성은 인구 112만 명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하이퐁-광남 경제삼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100여개가 넘는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인접 지역에 있어 미래 베트남 산업과 물류의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매년 8%가 넘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도시로, 최근에는 한화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앞으로 대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도시다. 김태선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시민이 답...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인치견 천안시의장

16대9의 여대야소 천안시의회를 별 달없이 이끌어 가면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협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나선거구(원성1,2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 인치견 의장을 만났다.

인치견 의장 약력

▲(전) 천안시의회 제5, 6, 7대의원 ▲(전) 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전) 민주당 충남 기초의원 협의회 회장 ▲(전) 천안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 천안여성 운영위원장 ▲(전) 태권도 총본부 국기원 경기분과 부위원장 ▲(현)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지회장 ▲(현) 천안시 개발위원회 위원 ▲(현) 중부미래포럼 공동대표



1.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4선에 오른 소감을 말하자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출마자들에게 쉬운 지역구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재작년 촛불 혁명부터 시작한 촛불이 꺼지지 않고, 국정농단의 주역인 정당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던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저는 시민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많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을 감시하며, 손과 발이 되어 심부름을 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주민 여러분께서 저의 노력을 알아봐 주신 덕분에 4선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인턴부 지면을 빌려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 유독 신부동에 주차문제로 민원이 잦았다. 해결방안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신부동에는 백화점과 터미널, 많은 병원과 회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말이면 백화점 주차공간마저 부족해 주변 골목에 차를 세워놔 주민들의 불편 또한 많다. 본래 우스갯소리로 주차문제 해결은 나라님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신부동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립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불법주차 단속은

반대한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금지 지역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 의회에서 가장 만들고 싶은 조례는 무엇인가?

지난 7대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를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제목만 보아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이다. 항상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이 많다. 그 공간들은 지역의 조례로 메꿔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

8대에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승 발전하겠다. 또한 어렵게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의 실행력을 잃어버려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이 실리도록 힘쓰겠다.

4. 천안시 뉴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원도심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가?

제 지역구는 신안동, 원성1·2동, 문성동, 중앙동이다. 천안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 신도시에 집중된 투자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 빈 공간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 과거처럼 한꺼번에 뒤집는 형식의 재개발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뚝뚝러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재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고 천안역세권과 남산공원지구가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재생을 통해 원도심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천안의 용광로와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녹아 새로운 성질을 띄게 되는 금속처럼 원도심 주민들과 천안시민의 소망이 녹아 기존에 천안에는 없던 새로운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5. 의장으로 선출 되었다. 소감을 말해달라.

제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뽑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시정 운영의 튼튼한 한 바퀴가 되도록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사안은 공익에 우선한 사고와 시각으로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천안시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단위 현안사업들

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집행부와 협의 조정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으로써 시민과의 신뢰감을 높여 나가고 싶다.

6. 핵심공약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지난 7대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대안과 연계한 주변 창업 거점센터 조성을 약속드린 바 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해야 한다. 지역 대학생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센터가 생기도록 노력 하겠다. 다음으로 원도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노인회천안시지회”를 신축 이전하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 “노인회천안시지회” 건물은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지회는 리모델링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회 건물은 새로 신축 이전해서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힘 쓰겠다.

마지막으로 도솔광장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을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솔광장을 조성 했지만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솔광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연이 되도록, 또한 버스킹 공연처럼 청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7. 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나 각오가 있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래 동안 정치생활할 수 있을

줄 몰랐다.(웃음) 1996년부터 신부동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했었는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어 1998년부터 신안동 새마을지도자로 활동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즐거웠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승도 도지사가 정치 입문을 권유해 주셨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되었고, 앞으로 4년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랑받는 우리 지역 의원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겠다.

8. 마지막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시민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기간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했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 지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나 한 마음입니다. 우리 의회는 천안시와 천안시민의 행복을 향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유래 없는 폭염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아침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에 행복과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김민성 기자

당신의 소중한 꿈!

국립한밭대학교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2018.9.10 (월) 10:00~
2018.9.14 (금) 19:00

입학안내 042-821-1070 <http://admission.hanbat.ac.kr>

한밭대학교

● 동 정 ●●●

운영결과 보고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3일 오후 4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2018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회'에 참석.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13일 오전 11시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열리는 2018 대전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

대전갈국수축제 추진위원회



박용갑 대구구청장= 13일 오후 2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대전갈국수축제 추진위원회' 참석.

서구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장종태 서구청장= 13일 오후 5시에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대 서구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청소년 나Be 한마당 개막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13일 오전 10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제4회 청소년 나Be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공모선정 주민설명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13일 오후 2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LMO 안전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차원 전폭적 지원·연구진 안전의식 확보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박용호 센터장 / 이비인후과 교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에서 안전관리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1회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동기부여·공연 기회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1일 유성문화원에서 동아리 회원 및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칠보공예, 캘리그래피 등 6개 팀의 작품전시와 함께 댄스, 합창, 한국무용, 기타 등 13개 팀이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선보이며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심사결과 전민평생학습센터의 한국무용 동아리 '예누림' 팀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은 전민평생학습센터의 멋진소리색소폰 동아리, 우수상은 온천1동의 꽃내음 합창단, 장려상은 기타 공연을 선보인 노은1동의 하늘동아리와 진잠동의 전통무용팀이 각각 수상했다.

정용래 유성구구청장은 "경연대회를 통해 평생학습 동아리들에게 동기부여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축제의 장을 확대하여 서로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동아리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시노인복지관-SK이노베이션 봉사활동 시행

독거어르신 정서적 지지 도모

대전시노인복지관과 SK이노베이션은 대전시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와 SK이노베이션 봉사자와 함께 「SK1004단 행복나눔 사랑잇기 결연사업 시즌II」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로 구성된 'SK1004단'은 대전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말벗 서비스, 후원물품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SK1004단은 이날 행사에서 독거어르신들에게 한가위 키트 후원품을 전달하고, 봉사자와 독거노인

인이 함께 어울려 추석맞이 율리 게임이 진행됐다.

김인원 관장은 "SK이노베이션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지속성, 정기성의 봉사활동 요소를 잘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독거노인에게 교류활동을 통해 고립감을 경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 활동을 통해서 독거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대덕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진행상황 보고와 함께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사회의 중요 구성

원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와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성평등교육,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 최초로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유연 요금지원을 통해 모국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해 다문화가족이 정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서구청장배 민속씨름대회 개최

대전 서구청장배 장종태는 오는 15일 은평공원 내 특설씨름판에서 '2018 서구청장배 민속씨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서구씨름협회가 주관하며 6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모래판이 아닌 실내 씨름판에서 사용하는 씨름전용 안전매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규칙은 일반 씨름과 같고 경기방식은 초등, 중등, 고등 등 학생부와 일반부 남·여 단체전으로 개최되며, 예선 라운드 승자는 4강부터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시상은 학생부 개인 우승과 준우승 남·녀부에 트로피와 상패, 부상이 수여되며, 3위 입상자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민족 고구스포츠인 씨름을 구민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씨름이 축구, 야구 등 일부 구기종목의 급속한 인기로 다소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서구청장배 민속씨름대회를 통하여 이만기, 강호동 씨의 명성을 이어갈 훌륭한 선수가 발굴되는 큰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새학기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중구, 11개교 앞 CCTV설치·2개교 등굣길 보도정비 등

중구는 12일 서대전초등학교 앞에서 새학기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 앞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교통지도와 함께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방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어린이를 태운 학부모에게 규정 속도 이하의 서행과 신호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구는 올해 상반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11개교 앞 CCTV를 설치하고 2개교 등굣길 보도정비 등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정비를 마쳤다.

박용갑 청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14일 성모초등학교와 19일 목동초등학교 앞에서 각각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신호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김태선 기자

NAVER logo and search bar with tex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Large advertisement for Hankook tires featuring a runner and the slogan '달았다! 달았다! 달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I ran! I ran! I ran! The technology that runs most 'naturally').

당진자활센터 세차 전문가 양성 추진

지난 9월 3일 사업단 출범·내달 중 사업 시작...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

지난 9월 3일 출장세차(Pilot) 사업단을 출범한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가 세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에 돌입했다.

출장세차 사업은 세차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모두 6명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교육과 실습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용요금 등을 확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처음에는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와 인근 당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다음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당진시 자활업무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도 필요하다"며 "출장세차 사업이 성공적인 자활사업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당진지역 취약계층의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 좋은가축 선발대회서 우수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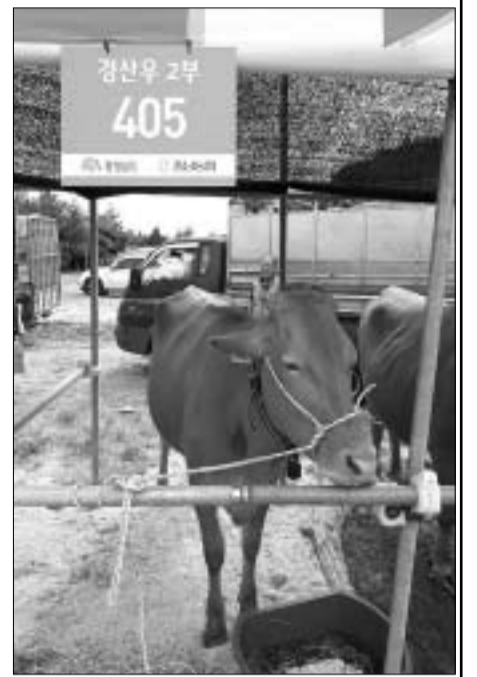
서산시,경산우 부문에서 이소영 농가 우수상·오세광 농가 장려상 수상

지난 11일 서천군 김민전공원에서 개최된 '2018 충청남도 좋은 가축 선발대회'에서 서산소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좋은 가축 선발대회는 농협 충남지역 본부가 주관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5개 시군의 한우 75마리, 젖소 30마리 등 총 105마리가 7개 부문에 출품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경산우 3부 고등등급우 부문에서 고복면 이소영씨 농가가 우수상을, 경산우 2부 할룡등급우 부문에서 팔봉면 오세광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무원 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으로 서산소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할룡등급우 장려금 지원, 한우천자 확인사업,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수정란 이식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서산한우 생산에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7년 대회에서도 경산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암송아지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충청지방통계청 쌀 예상량조사

농업정책 수립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송금영)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7일간) 충청지역 582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2018년 쌀 예상생산량조사(9.15기준)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생육중기 논벼의 생육상황을 파악해 올해 총 쌀 생산량 예측자료 확보, 벼 매입량 결정 등 농업정책 지원과 각종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

쌀 예상생산량조사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대상 필지에서 표본구역을 선정하고 표본구역내의 벼를 대상으로 1m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낱알수, 피해상황, 품종 등을 현지에서 직접 측정해 10a당 예상수량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충청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동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농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김예은 042-366-8270, kye394@ko.re.kr)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시 추석맞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아산사랑상품권 15%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판매에 들어가 총 1억 5천만원의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당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한도는 1

인당 30만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아산시 내 온양온천시장,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 당정면사무소 인근상가 및 지중해마을, 외암리저장거리 등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추가 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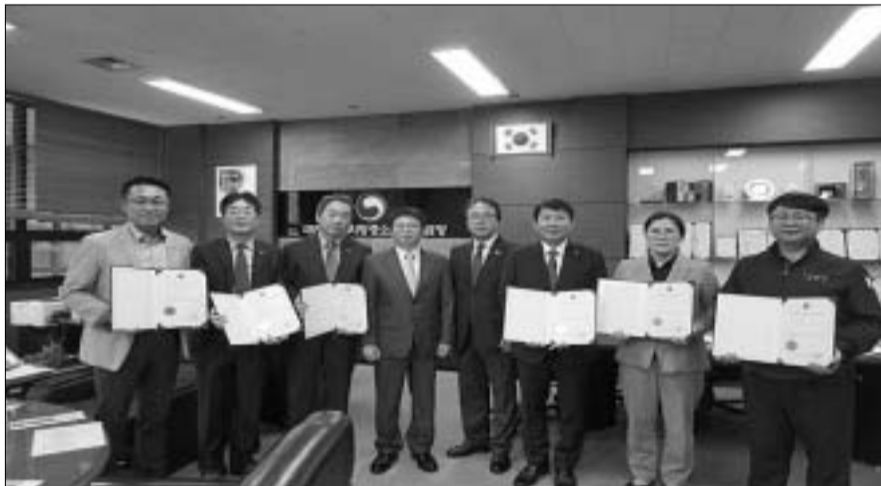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구매·사용하면 아산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지난달 6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규인증

대전충남중기청, 지난 11일 이노비즈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 열려



대전·충남·세종지역 6개 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범수)은 지난 11일 이노비즈협회 관계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들 기업을 격려했다.

이노비즈 수여식이 끝난 뒤, 참석한 이노비즈협회 관계자와 신규이노비즈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규제에 맞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번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논산에 위치한 ㈜마루카네코리아는 한일합작회사로써, 계란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 기업이다.

1인 가구 증가, 편의점이라는 유통채널 성장 등을 정확히 파악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데 성공, 현재 편의점 냉장식품

분야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백화점, 하나로 클럽 등 판매처를 점차 넓혀 나가고 있다.

㈜카시모는 아파트·오피스텔의 불박이가구와 기업 관공서의 인테리어, 사무용 가구 전문생산업체이다.

서랍의 슬라이딩이 단속되는 불박이장, 어댑터인 장금장치 등 각종 특허를 출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동회전 가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전문 설계팀과 디자인팀, 개발팀을 두고 꾸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과 자금, 판로 인력 등 정부 지원정책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업은 연장된다.

현재 전국의 이노비즈기업은 1만 8173개이며, 이 중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1288개 기업(대전 484, 세종 53, 충남 751)이 확인서를 취득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제1호 아동참여놀이터 개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1일, 아동친화도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제1호 아동참여놀이터인 용푸름놀이터(제37호 공원) 개장식을 용화동 71번지에서 가졌다

용푸름놀이터는 아동참여놀이터로 2017년 8월 관원부서 공무원, 학부모, 아동관계자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9월 2차례 '아산아 놀자' 캠프를 개최해 아동의 견을 수렴해 탄생하게 됐다.

또, 아동참여공원 조성 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용화초등학교 학생 및 관계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7호 공원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장의 개원선언,

용화초등학교 교감의 축사가 있었다.

오세현 시장은 개원선언에서 "시민과 아동과 전문가가 참여해 조성한 용푸름놀이터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첫 공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공원은 이처럼 아이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함께 테이프 컷팅식을 하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낙서판에 낙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바닥분수 가동으로 아이들과 지역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공간에 즐거워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

제8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의정과 함께 책임지는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논산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강경대중시장 안전컨설팅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11일 오전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강경대중시장에 대해 '현장 안전컨설팅(안전점검 및 지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주경찰서, 찾아가는 협력 치안설명회 개최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11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시의회(의장박병수)의원 11명,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경찰서(공주시, 공주시의회)와 함께하는 협력치안설명회를 실시했다.



정북양 대전충남병무청장, 추석명절 보호공감 정북양대전충남지방방무청장(오른쪽)은 강윤진 대전지방법보훈청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추석명절을 앞둔 12일 '보호나눔 실천을 위한 보호공감'에서 6.25한 국전쟁에 참전한 김동수 국가유공자(중구 용두동 거주, 오른쪽 두번째)를 방문해 추석 명절을 계기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산힐돌유치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아산힐돌유치원(원장 이미경)은 지난 11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고마운 점과 무서운 점에 대해 이야기 하니 유아들이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으며 자기의 생각을 씩씩하게 표현했다.



청양소방서, 현장대응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대응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고현장 초기의 상황판단 및 소방작전 운영 등 전반적인 현장대응에 전문성 및 체계성을 함양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 위탁교육 기관 초청 인사담당자 간담회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11일 오후 대전보훈청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 지역 위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초청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직원대상 경각심 고취시키고 청렴문화 확산 위해 발령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와 기관의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의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와 기관의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의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협약서 체결

금강유역환경청 13일 체결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13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재)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학교 어류복원센터, (주)한국타이어가 참여하며 체결기간은 3년간 '189~'219)이다. 또한,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은 대전시의 깃대종인

회공원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순천향대학교와 (재)천리포수목원에서 서식 실태조사 및 증식·방사 등을, 시민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서식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게 된다.

회공원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순천향대학교와 (재)천리포수목원에서 서식 실태조사 및 증식·방사 등을, 시민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서식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김동진 청장은 대전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도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을철 등산목 안전 캠페인 실시

서산소방서, 남·녀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서 직원 등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12일 남·녀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서 직원 등 약 30여 명이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목 안전캠페인 운영 및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팔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의 협업, 당노 측정 등 등산 전 기초건강 체크를 지원하

청양군, 지진안전주간 캠페인 및 지진대피훈련 실시

제409차 민방위훈련과 연계 지진안전주간 캠페인

청양군(군수 김동관)은 지진 안전 주간(9. 10.~ 9. 14)을 맞아 지난 12일 제409차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지진안전주간 캠페인 및 지진대피훈련을 시행했다. 지진 안전 주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정되었고, 매년 지진 안전 캠페인과 지진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군 청사와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한 지진대피훈련은 지진경보음이 울리면 실내에 있을 시 책상 밑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실외에 있을 시에는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진대피 행동요령 등을 미

리 숙지하여 유사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겨우 지진 내 가까운 지진대피 장소를 평소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소 안내와 지진발생 행동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진대피 장소로서 관내 21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옥외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소방서, 전문응급처치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

지역 응급의료발전 및 재난현장 대응 강화하고자 마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12일, 아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유형별 전문 응급처치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응급의료발전 및 재난현장 대응에 강화

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은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소방서에 방문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현장 심폐소생술 기본 술기인 정맥도 확보와 수동체제동기 사용방법, 약물투여 등 환자유형별 주제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안성운 구급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교육으로 구급대원들의 현장 처치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문교육으로 병원 전 이송 단계의 응급처치 품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64회 백제문화제'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공주소방서 백제문화제 행사장 9일간 소방공무원 70명 임시인선센터 운영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제민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백제문화제 행사장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으로 화재 개연성 차단 ▲소방 CP 운영으로 각종 안전사고 관리 ▲소방력 근접배치로 행사장 내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등이다. 세부추진사항은 금강신관공원에 소방지휘소(CP), 임시119안전센터 운영,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

방 운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소방안전활동, 상황관리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이 상시 대기 근무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펌프차량, 구급차량, 수상보트 등 총4대의 소방장비가 매일 동원된다. 이와 더불어 축제기간 동안 지진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과 대피방법을 익힐 수 있는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을 운영,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우는 심폐소생술 체험 및 주목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예산췌, 호신용 스프레이 배부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금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공한다. 경찰서장의 소지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호신용 스프레이는 언제 어디서든 위기 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립스틱 사이즈로 간편하게 소지가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여 기침, 눈물, 콧물을 유발하여 눈을 뜰 수가 없어 손쉽게 위기상황에서 탈출이 용이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진우 서장은 "신변보호대상자로 하여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범죄피해로 두 번의 눈물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청소년 자녀를 둔 직원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역할"

대전충남지방방무청은 지난 11일 점심시간을 이용, 청 내 복키카페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직원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의 첫 연사는 정북양 청장이 청소년 자녀를 둔 직원들과 워킹맘·워킹대디가 겪는 고충과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 청장이 청소년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도 했다. 자리에 참석한 A직원원은 "직장원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부모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충남교육청,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총력'

당진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식중독 예방 컨설팅·특별점검·예방교육 등 실시

2018학년도 2학기 현장 공감 특수교육 지원 위해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집단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6개교를 선정해

14일까지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대전식약청과 협업하여 도내 10개교를 선정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교육기관에 9월에는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만큼 관련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학교에 손씻기 강화, 생체소 세척, 소독 철

저, 충분한 가열 등 준수사항을 재강조하고 이월철저를 지시했다

이 밖에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을 6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은 "최근 문제가 됐던 케이크 섭취로 인

한 식중독 환자 발생은 없었으나 언제든지 식중독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과 학교급식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택)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당진지역 특수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증대 전문성 함양을 위한 2018학년도 2학기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긍정적 행동지원 증대란 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써 선행사건 조정, 대체행동 교수, 후속 결과 조정 등을 통한 긍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환경에서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맥락적 변인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 정진학교 이성에 수석교사가 초청되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주제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보령교육지원청, 차분하게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하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12일, 청 내에서 2018년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제408차 민방위의 날과 연계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지진대피훈련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예측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안전의식 함양과 대피능력을 길렀다.



아산 배방중, 아산위인 파워리더십 선도학교 운영 일환

거북선·판옥선·양부일구 만들기 대회

아산배방중학교(교장 임원복)는 2018학년도 아산위인 파워리더십 선도학교 운영 일환으로 10일 거북선, 판옥선, 양부일구(해시계) 만들기 대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아산의 위인이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친구와 협력(2인 1조)하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전교생 중 희망자 58명이 2인 1조와 개인전 형식으로 운영됐다. 2인 1조는 거북선과 판옥선 만들기, 개인전

은 거북선, 판옥선, 양부일구(해시계)를 만들었다. 2인 1조는 친구와 협력하여 3D퍼즐을 시간내에 완성하는 활동이고, 개인전은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퍼즐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완성품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

행사 결과 우수상에는 거북선 부문에서는 김성연, 조윤형(2-4)의 5명, 판옥선 부문에서는 윤희상, 이은현(3-15)의 4명, 양부일구 부문에서는 김하윤, 정영원(2-14)이 차지하여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아산=리향주기자



마을 웃어른과 함께 일석삼조 송편 만들기

청양 정산초, 전교생 대상으로 곧 다가올 한가위 기념

정산초등학교(교장 민명선)는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곧 다가올 한가위를 기념하며 송편 빚기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 웃어른(6명과 함께 한 송편 만들기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하는 추억, 어른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로, 훈훈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비록 서툰 솜씨지만 친구들과 둘러앉아 정성껏 모양을 빚으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렇게 만든 송편은 포장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인근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접할 예정이다.

민명선 교장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평생학습관, 부모와 자녀 공감 프로그램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수강생 선착순 모집

대전평생학습관(관장 임태수)은 9월 12일(수)부터 9월 18일(화)까지 부모와 자녀의 공감 확대를 위한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행복한 캠퍼스 투어(키이스트)」、「우리 가족 인문학 여행(백제 역사)」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9월 29일(토)부터 10월 20일(토)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프로그램 별 주요 내용은 대학생 멘토와 가족이 함께 캠퍼스 체험 활동을 통해 자녀의 꿈과 동기 향상을 위한 「행복한 캠퍼스 투어(키이스트)」, 자녀와 함께 백제 역사 탐방을 통해 인문학 소양 고취를 위한 「우리 가족 인문학 여행(백제 역사)」,

의사 결정 유형 검사를 실시해 가족의 꿈과 진로 설정의 시간을 갖는 「꿈을 찾는 우리 가족 진로캠프」, 자녀와 아버지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자유친 캠프」, 대전 인근의 숲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자연에서 느끼는 우리 가족의 초록 울림(숲체험)」으로 부모와 자녀 간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구성했다.

수강신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dl.or.kr)에서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학부모지원과, ☎220-05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

'아이가 행복한 숲유치원,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세종시교육청, 숲유치원 운영 위한 교육공동체 공개 토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아이가 행복한 숲유치원, 우리 모두 함께 해요!'를 주제로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유치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인 삼육대학교 신지연 교수는 '숲에서 뛰어 노는 행복한 세종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 세종시교육청은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아이다움교육과정'을 연구·운영해 왔다"며, "2019년 전국 최초의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함으로써 국내 숲유치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을 주도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일에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임재택 이사장의 진행으로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인 5명의 토론자가 '한국형 숲유치원, 유아 숲교육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아가야겠다', '아이다움교육연구소 소장', '숲과 자연에서 놀며 배운다(순수화, 두루유치원장)',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숲유치원(이소영, 대구수성대학교 교수)', '세종의 숲유치원에 대한 기대(장영이,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정책위원)'에 대해 지정토론을 펼쳤다.

세종=김태선기자

'제26회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 대회'

충청우정청,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청장 홍만표)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제26회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짧은 글 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부분을 신선했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며, 주제는 다음 4가지 첫째, 꿈은 미래 우체국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체국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상상 넷째, 사랑·행복 중 하나를 선택해 생활문(수필, 일기, 시 포함)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 부문은 '우정사업본부' 6월 시 또는 위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단문을 작성하면 된다.

일반부문 응모를 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부문 응모는 휴대폰에서 글짓기대회 지정앱을 다운받아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통학차량 안전장치 합동점검' 실시

부여교육지원청, 관내 유·초 어린이 보호차량 전수조사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철)은 11일 부여종합운동장(규안면 나복리) 주차장에서 관내 유(사립유 포함) 초 34교(원) 통학차량 43대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여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의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점검은 통학차량 간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설치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이하 좌석안전벨)의 실제 작동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사용방법을 실제로 교육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

였으며, 그 이외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을 확인하는 등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이종철 교육장(부여교육지원청)이 직접 점검에 참여하여, 통학차량 안전장비 및 좌석안전벨을 점검하며 현장안전을 실제로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에게 학생 안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였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하였다.

부여=김성구기자

'천안흥타령춤축제 2018' 운영

축제 내 '먹거리장터' 안전, 위생 이상 무



천안시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18"이 12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운영된다. 그 중 '먹거리장터(이하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먹거리는 지역 향토 음식을 주된 바탕으로 민물새우탕, 울감이버섯국, 병천순대 등이 주메뉴이며, 작년 당시 취식 인원이었던 2,680명에서 올해는 2,760명으로 늘려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위생, 안전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후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민전을 기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7월부터 참가업소를 공개 모집했고, 전문가, 학계, 사회단체, 외식업주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장터 참가업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울였으며, 매일 아침 6시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9시에 현장에 모여 위생과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민간인과 천안시가 함께 협력하여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 내 자율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먹거리 준비에도 민전을 기하고 있다. 당일 재고는 즉시 폐기 원칙을 통해 후시 모를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배수 설비, 카드결제, 현장 식기 세척 등 시민 편의와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외식업 중앙회 천안시 지부와 천안시 식품안전과 및 상인들이 협력하여 별도의 운영위를 구성하는 등 흥타령축제 내에서도 먹거리민화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이다.

천안=김민성기자



공주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11일 공주 상왕동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공동체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유영덕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장애우들과 소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정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오세현 아산시장 =13일 오후 6시 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김홍장 당진시장 =13일 오후 6시 30분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정례회

김기재 당진시의장 =13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4일 차에 참석.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가세로 태안군수 =13일 저녁 6시 30분 태안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김돈곤 청양군수 = 13일 오전 9시 10분에 덕산리 스포스케스에서 개최하는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층 포럼에 참석 후 오후 5시에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아산시 통일 토크콘서트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1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통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8 아산시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쇼에는 이창규 아산시 부시장과 이윤기 충남하나센터장, 김윤태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장, 한기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장 및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베이비 인기웹툰인' 로동신문, '고발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 웹툰작가 최성국 작가의 통일 특강으로 시작했다. 최성국 작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되짚어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에 다가갈 통일에 대비할 것을 호소했다. 특강에 이어 채널A '이재 만나러 갑니다'의 정유나씨, 정민우씨, 뉴포커스 기자 박주희씨 등 북한에서 남한으로 정착해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 패널로 참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선, 남북 문화차이 극복 등을 주제로 공감대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정형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청중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토크쇼 형태로 진행, 아산시 거주중인 42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창규 아산부시장은 "이번 통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도민체전 성화 채화 '축제분위기 활활'

13일 열리는 도민체전 개막 앞두고 성화 8개 읍면 돌아 태안군청 광장에 안치

태안군이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군은 '함께뛰자 태안에서! 하나되자 충남으로!'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화가 지난 12일 백하산에서 채화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성화 채화식은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주선녀가 채화한 성화는 가세로 군수가 첫 주자에게 인계를 맡고 김기재 태안군의회의장이 야현관, 김형근 교육장이 종현관을 각각 맡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천체를 봉행했다.



이날 성화 채화식은 가세로 군수가 첫 주자에게 인계를 맡고 김기재 태안군의회의장이 야현관, 김형근 교육장이 종현관을 각각 맡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천체를 봉행했다. 이어, 주선녀가 채화한 성화는 가세로 군수가 첫 주자에게 인계를 맡고 김기재 태안군의회의장이 야현관, 김형근 교육장이 종현관을 각각 맡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천체를 봉행했다.

또한, 성화가 지나가는 주요 구간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물놀이, 난타, 밴드공연 등이 펼쳐져 군민 참여의 열기를 더했다. 가세로 군수는 "북군 이후 태안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합심하여 준비했다"며 "대회 성공을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성화대회를 환하게 밝혀 충남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체전은 '함께뛰자 태안에서! 하나되자 충남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안종합운동장 등 28개 경기장에서 9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열린 경쟁을 펼친다. 태안=김정항기자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대피훈련 진행

당진시, 지진 안전주간 맞아 시민 안전의식 전파



당진시가 지진 안전주간(9월 10~14일)을 맞아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과 지진 대피 훈련을 11일과 12일에 진행했다.

11일 당진 시내 일원에서 진행된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안전관리관 협력위원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안전 무시 7대 관행 근절이라는 주제로, 안전수칙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불법 주차장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멍조끼 미착용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에는 당진시청사와 천년나루 2단지 아파트 두 곳에서 시청 직원과 민원인, 아파트 입주 주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지진 대피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지진대피 훈련은 당진지역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책상 등을 이용한 1차 안전진조치 후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건물 밖 대피 후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급법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조치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지진 안전주간은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가 지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지진 안전캠페인과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당진형 주민자치 전국 주목 이유 있다

주민세 활용·시민 참여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당진형 주민자치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당진형 주민자치가 각종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모두 8회에 이른다. 당시 당진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해 주목받았는데, 이 사례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와 지역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전국 지역리더 대회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충북지역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도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시는 10일과 11일에도 서울시회회가 주관한 '2018 서울마을 주간 주민자치 확산 포럼'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 전환 설계 지원 워크숍'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주민세 활용의 경우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을 연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상적인 주민세 환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세 활용 외에도 당진시가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학생과 주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시민들까지 주민자치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자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감시

10월 2일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 앞장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대해 9월 10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중점단속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설성수품 제조업체, 환경기초시설은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지진, 인화물질, 무한전, 차상전 등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과 금강본류 등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추석 연휴기간(9. 22. ~ 9. 26.)에는 상향심을 설치?운영하고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해 유사시 환경오염사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농어촌 도로·소류지 제방 일제정비

대치면, 8개 호선·소류지·제방 10개소 제조작업·정비

대치면(면장 김종용)은 지난 11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연휴 기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리도 8개 호선과 소류지·제방 10개소에 제조작업 및 정비작업에 나섰다. 면 관계자는 리도 138km, 소류지 10개소에 대하여 풀 깎기, 잡목제거 등 갖가지정비를 오는 16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용 대치면장은 "제조작업을 적기에 실시해,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잡초 등을 정리하여 도로변 정비가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자연경관을 정비하여 귀성인, 방문객에게 더욱 깨끗하고 청정한 대치면의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제70회 충남도민체전 필승 의지 다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1일,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출장을 앞두고 시청 시민홀 3층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선수단, 임원, 체육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민체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오세현 시장(아산시체육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시를 대표해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며, 2016년 제68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종합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제70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은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안군 일원에서 열리며 시·군 대상으로 시범경기 그라운드 골프를 포함해 25개 종목, 초·중·

태안군 '청년이 미래다!' 청년네트워크 출범식 열려

청년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수렴·군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



태안군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태안문화원에서 청년위원, 자문교수,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선정된 5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반영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은 ▲청년네트워크 추진배경 설명 ▲청년위원 위촉장 수여 ▲전문가 강의 ▲청년정책 발표 ▲연말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마지막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 원탁별 토론회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를 참여시켜 원활한 진행을 돕고,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토론회내용은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정책기반 조성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일자리 분야) ▲주거, 생활환경 개선 정책(주거·복지 분야) ▲청년 역량강화 교육(방안교육·문화 분야) 등 총 4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으며,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군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앞으로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집약한 최선의 시책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 군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수신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항기자

동정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김정섭 공주시장은 13일 오후 2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오후 5시 태안군에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목요 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은 13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 간부회의, 오전 10시 30분 우연플로라호텔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회 및 이사회, 오후 3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발대식, 오후 6시 30분 태안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식



맹정호 서산시장은 13일 오전 11시 30분 노인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리는 어르신아카데미 격려인사, 오후 6시 30분 태안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문정우 금산군수는 13일 오후 6시 태안군서 열리는 제70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리는 '충남혁신교육 2기 공감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고, 오후 6시 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daejeontoday.com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순조'

서산시, 위원 7명 위촉... 금년 중 준공 목표

서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인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면 왕정리 일원에 3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6,049㎡, 건축연면적 2,529㎡ 지상 1층 규모로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다단계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620여 중소기업에 수퍼마켓의 상품구매 및 재고관리를 일괄 수행하고, 특화상품 개발 및 공동 판매사업 등에 대한 마케팅, 컨설팅 사업도 지원 예정이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수퍼마켓 등 중소기업체의 구매원가 절감으로 가격경쟁력과 자생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동반성장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인심축제 성공다짐,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단체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다짐

금산군자원봉사센터에서 양현환(11일 다목적근민회관 3층 강당에서) 31개 자원봉사단체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인심축제 성공다짐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 및 소통, 연대교류 등 자원봉사 활동 단체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문정우 군수는 "금산 전통인삼 농업이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첫 해이니 만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애함심으로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인심축제 기간 중에는 5개 분야 1일 332명, 연 281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행사 성공을 뒷받침하게 된다.

양현환 센터장은 "오는 9월 28일 자원봉사자 다짐결의대회를 갖고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제37회 금산인심축제에서 뜻깊고 진철한 금산, 정이 넘치는 금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시청 공직자, 알밤줍기 봉사활동 술선수법 전개

"밤 재배 농가 인력지원"



가을 영농철인 알밤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 등 인력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밤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공주시청 공직자들이 힘을 모았다.

공주시시장 김정섭(13일 오전 8시부터)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정안면 산성리 밤 재배 농가를 찾아 알밤줍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공직자들은 가뭄과 태풍으로 시름이 깊은 밤 재배 농가를 위로하고 알밤줍기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줬다.

시는 앞으로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밤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밤 수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알밤줍기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알밤 수확기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 재배 농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공직자들이 솔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인력지원이 필요한 밤 재배 농가와 자원봉사자 간에 체계적인 연계 역할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공주밤 명성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삼범 기자

우리/동네

추석맞이 머드화장품 특별 할인 판매

보령시, 최소 7%~최대 50%까지

보령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표 브랜드인 머드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5개 품목에 대해 최소 7%부터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보령머드화장품'은 보령의 청정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 진흙으로 만드는데, 정제 과정을 거쳐 머드파우더로 만들어진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령산 머드는 미네랄성분이 풍부하고 게르마늄, 벤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돼 피부수축과 피부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이스트리얼 사해 머드에 필적하는 피부미용과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 판매기간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수분바디로션(50%, 5000원)과 도미 스크림(40%, 1만2000원), 수분 폼당세트(40%, 8000원)이고, 남성 기초 2종스킨, 로션은 38% 할인된 2만6000원에 판매된다.

또 기초5종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등 세트는 33% 할인된 10만 원, 에센스와 아이크림, 스킨 및 밀크로션 등도 30% 할인하고, 삼푸와 린스, 팩 등도 10~20% 할인한다.

3만 원 이상 구입하면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보령머드화장품 홈페이지(http://www.bmud.kr/ko.do)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구입 문의는 보령시 관광과 머드사업팀(041-930-3526-7)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보령머드화장품은 공공기관 및 일반판매점 114개소와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수출로 연간 17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고, 2017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 시상식에서 친환경화장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 공히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보령=김태선 기자

해안방재 합동 훈련 '구슬땀'

서산시, 해양오염사고 대비 합동훈련

서산시에 태안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사고로부터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산시에 태안해양경찰서는 11일 대산읍 오지리 발전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안가 유류피해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18년 해안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훈련은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로 인해 방커유 50킬로리터가 유출돼 이종 일부가 조류를 통해 해안가로 부축된 상황을 가정하고, 6개 기관, 해운사, 민간업체 등 방재인력 43명과 선박1척, 굴삭기, 비치클러너, 저압세척기 등 전용장비 7대를 동원하여 실시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은 "태안해양경찰서, 관계기관 및 민간업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달하고, 방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훈련 실시로 해안방재능력을 향상하고, 방재협력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 modern amenities. It includes text in Korean and English, images of hou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EST PLAN'.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힘겹게 대영을 떠나보낸 진옥은 절망하고, 망해가는 마트로 발령받은 사심을 애가할 수 없는 복남은 오히려 특한 말만 퍼붓는다. 결국 참다못한 진옥이 폭발하는데...

▲ 나도 엄마야 (SBS 오전 8시30분)

박근형시대종은 알렉스(신상혁)에 술 한잔하자며 찾아가 형 박준혁(신현준)과 조카를 위해 이인혜

(윤지영에게 선처를 해달라 말하라고 부탁한다. 지영(이인혜)이 소두증이었다는 임 여사(윤미라)의 말에 혼란에 빠지는 상혁(알렉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경신(우희진)! 한편 헤림(문보령)은 상혁과 경신에게 진실이 뉘저 질문받게 되는데...

▲ 내일도 맑음 (KBS1 오후 8시25분)



하나(백승희)는 외근을 나갔다가 레오(로빈)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수정부티크로 달려간다. 한편 은애(윤복인)의 반찬가게로 형사가 찾아와 고모(백현주)의 행방을 묻는데...

케이블 영화

▲ 미스페레그린 (OCN 오후 12시40분)

올 가을, 세상에 없던 유일한 미스터리 판타지! 할아버지의 죽음의 단서를 쫓던 '제이크'는 시간의 문을 통과해 놀라운 비밀과 마주한다.

시간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미스 페레그린'과 그녀의 보호아래 무한 반복되는 하루를 사는 '특별한 능력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 '할로게스트'

미스 페레그린과 제이크를 비롯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할로게스트'에 맞서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들의 대결이 팀버튼의 마법같은 상상력으로 펼쳐진다.

4년 만에 직접 미스터리 판타지 연출로 돌아온 팀 버튼 감독! 그의 손길로 탄생한 상상 너머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45주 연속 선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원작 소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작품의 영화화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외 언론은 팀 버튼 감독이 연출가로 물망에 오른 것을 앞두고 보도하며 팀 버튼과 원작 소설과의 완벽한 조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 아내가 결혼했다 (채널CGV 오후 10시30분)

나를 두고... 또! (아내가 결혼했다) | 자신 있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

귀여운 외모와 넘치는 애교, 현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면모와 남자 못지 않은 축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아. 말까지 적절 잘 통하는 그녀를 만날수록 덕훈은 보통 여자와 다른 그녀의 특별한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그러나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픈 덕훈과는 달리, 덕훈을 사랑하지만 '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너무나 자유로운 그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한 그녀는 내꺼라는 것!"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있던 어느 날, 불안함에 폭발하여 따져 묻는 덕훈에게 인아는 다른 남자와 잤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찾기에 이별을 선언하지만, 잊어도 해도 잊을 수 없고, 커져만 가는 그녀에 대한 마음에 괴로운 덕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그녀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다. "너의 자유로운 연애를 종식시키기 위해, 너를 연애의 무덤 '결혼'으로 데려가리라!"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s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대전시티즌, 금성백조 후원협약식 '후원금 1억원 전달'



2018년에도 대전시티즌과 ㈜금성백조주막이 함께 달린다. 12일 오전 대전 시청 응접실에서 후원협약식을 맺고, 발전후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허태정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전시티즌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대전시티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호 대표이사 역시 "지역 기업과 시민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최근 7경기 무패행진 등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환기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주화 및 메달을 제작해온 조폐공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문화 확산 및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조용필 데뷔 50주년 공식 기념메달' 제작을 추진중이다.

큐리어스 뮤직, 제1회 아악(牙樂)페스티벌 개최

아산의 어금니 '아(牙)와 풍류 '악(樂) 조합... 아산의 즐거운 음악이라는 뜻



아산시 공연기획자이며 예술단체인 큐리어스 뮤직이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우수대중음악공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곡교천 캠핑장에서 그막을 올린다. 2018년 제1회 아악 뮤직페스티벌은 아산의 어금니 '아(牙)와 풍류 '악(樂) 조합'을 아산의 즐거운 음악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타이틀의 어금니가 느껴지는 아산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어 즐겨워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태권 파이터' 홍영기, 고향 대전서 ROAD FC 050 출격

팀 동료 권아솔의 복수전 나서



ROAD FC(로드FC) '태권 파이터' 홍영기(34, 팀 코리아 MMA)가 고향 대전시에서 팀 동료 권아솔의 복수전에 나선다. 오는 11월 3일 대전 충무체육관

홍영기가 이번엔 만나게 된 나카무라 코지는 변칙적인 공격이 일품인 파이터다. 특히 지난 2013년, ROADFC013에서 홍영기의 팀 동료 권아솔을 변칙적인 하이킥으로 제압했다. 홍영기는 "권아솔의 복수를 하겠다"며 더욱 각오를 다지고 있다.

ROAD FC(로드FC) '태권 파이터' 홍영기(34, 팀 코리아 MMA)가 고향 대전시에서 팀 동료 권아솔의 복수전에 나선다. 오는 11월 3일 대전 충무체육관

가왕(歌王)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메달' 나온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꼽히는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선보인다.

한글조폐공사(사장 조용만, www.komsco.com)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메달을 제작, 10월중 판매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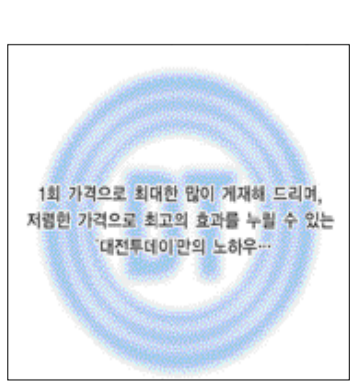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주화 및 메달을 제작해온 조폐공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문화 확산 및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조용필 데뷔 50주년 공식 기념메달' 제작을 추진중이다.

'조용필 50주년 기념메달'의 앞면에는 국내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가 작업한 조용필의 공연 장면이, 뒷면엔 변조 방지 특기 기술이 적용된 데뷔 50주년 기념 엠블럼이 표현된다. 메달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함께 제작되는 부조서에는 제품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조폐공사 최성호 영업개발처장은 "세계적인 메달 제조기술과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가왕(歌王) 조용필이 대중음악사에 남긴 수많은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념메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용필 50주년 기념메달의 글로벌 유통사인 솔앳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념메달이 대중문화와 한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는





배재대 노조 30주년 기념식 개최 전국대학노조총합 배재대학교지부(지부장염경철·배재대 노조)는 12일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콘서트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공주시, 제64회 백제문화제 현장점검 나서 공주시(시장김정섭)가 제64회 백제문화제를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1일 축제장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행사장 배치 현황과 주무대, 미르섬 백제별빛정원, 공산성 웅진성의 하루, 웅진판타지아 공연 등 주요 행사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당진 합덕 서울내과, 추석 맞아 사랑의 쌀 기부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서울내과의원(원장 김병구)은 지난 11일 합덕읍과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등 당진 남부권에 위치한 4개 읍면을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햅쌀 10kg 178포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탁했다.



오세현 시장 아시안게임 참가아산선수 초청 격려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10일, 시정실에서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선전한 아산시청 직정운동부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어기구 의원과 추석맞이 사랑나눔 봉사 활동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병욱)는 지난 11일, 당진시 읍내동 벚꽃아파트 노인정에서 국회 신자위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농협과 농가주부모임, 무료급식 행사 가져 농협아산시지부(지부장 임성동)는 12일, 송악농협(조합장 이주선)과 선도농협(조합장 박중호) 농가주부모임(회장 우영자) 회원등 30여명이 온양온천역 하루공간에서 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무료급식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대덕대학교 항공부사관과, 항공 및 공군 軍 간부 인재양성 요람으로 발전

대덕대학교 항공부사관과는 대전·세종 지역의 유일한 항공 정비학과로서 공군과 우수정비 인력 획득을 위한 협약체결학과이며, 항공산업체와도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항공부사관과는 항공산업체 및 학·군 교류 협력으로 4차 산업에 부응하는 최첨단 항공정비(항공기체, 항공엔진, 항공전자·통신 분야) 실무역량 극대화를 위해 첨단 공군장비를 활용한 현장실습 및 체험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실습으로는 항공 전자통신실습, 항공무장, 항공기체실습, 항공정비현황, 항공기 지상 탑승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과특성과 사업으로 드론자격증 취득과정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산업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들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득한 자격증은 공군부사관 지원 시에 특별전형 지원을 통해 항공전자정비, 항공무기정비 등 16개 특기분야에 대해 특별전형

으로 공군 부사관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으며 군 진출 후 직업군인 요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공군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체, 드론부대, 육군, 해병대, 해군 남여 항공부사관 및 3사 관학교(장교)등으로 다양한 진출할 수 있으며 학과와 연계 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국립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에 무시험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한편 항공부사관과는 2018학년도 정원 30명에서 2019년 60명으로 정원을 증원 하였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시 1차 신입생 52여명(정원60명)을 모집한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칠폰폭풍 공주여행

'고미열차' 본격 운행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대한민국의 테마여행 10선 국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제작·구입한 '고미열차'를 제64회 백제문화제 개막일인 14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미곰과 공주를 형상화해 제작한 고미열차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특별을 받은 대형 승합차량으로 동력차 1대, 객차 3대로 연결돼 있으며, 한번에 4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고미열차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등의 정해진 코스를 왕복 운행하며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차시간은 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7회 운행하며,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내외로 왕복 40분 정도 소요된다.

공주=정성범기자

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

추석맞이 농산물 후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는 추석에 맞아 12일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세대 100가정을 위한 농산물을 후원했다.

농산물은 충청지사와 1사1촌 마을인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에서 정성껏 수확한 참기름, 고춧가루를 지원했으며, 지역 내 한 톨품어르신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가정 명절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상욱 충청지사장은 "폐광 지역 농산물 구매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모델로 공단은 폐광지역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대 오상욱 선수 '대동

제' 일한... 팬 사인회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지난 11일 교내 서문특설무대 앞에서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대전대 오상욱 선수를 초청,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김정환기자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통큰 할인행사

어려운 경기속 훈훈한 추석 보낼수 있어... 주민들 큰 호응



태안농협 하나로마트가 올 추석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훈훈한 추석을 보낼수 있게 됐다. 이는 군민들의 평가다.

올해 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배추 값이 폭등, 추석을 앞둔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와중에 태안농협이 통큰 할인행사를 마련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태안농협은 10일 아침 배추 1방(3개)을 1만원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해 이를 구입하기 위한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는 시중가보다 6~7,0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며, 농협은 총 1,000방을 준비 했지만 몇시간 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주부 모씨는 "추석을 앞두고 배추 값이 워낙 비싸 김치를 담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태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하나로마트한성근 점장은 "우리 태안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주민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주기위해 조합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할인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중부도시가스, JB(주) 사명 선포

도시가스 와 에너지를 넘어 생활의 가치를 제공할 것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한권희)가 JB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한다.

중부도시가스는 11일, 충남 아산시 읍내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항덕 회장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선포식"을 갖고 사명을 "JB"로 변경했다.

새로운 사명인 "JB"는 기존의 중부도시가스의 영문 이니셜이면서 'Join us, Better life'를 약어로 표현한 것인데, '회사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역할 참여자들이 JB

와 함께 더 나은 생활의 가치를 추구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만든 심볼은 JB를 도형화 하여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양을 표현했으며, 사람(모든 역할 참여자)을 중요하게 여기는 'JB'를 상징하고 있다.

한권희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이번 사명선포식을 계기로 JB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여 고객에게 안전, 편리, 행복이 융합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설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

재해 예방 '공동협력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은 13일 도시통합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세종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인섭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과 양항열 (사)대전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장은

세종=김태성기자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무료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문제 해소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는 대전이 주여성센터 입주자들이 대상으로 12일 대안내과의원(원장 어원철)과 협력해 5대 암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

치 실현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연계 사업으로 추진한 무료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건강 불평등문제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송병배기자



목원대 유아교육과, 제7회 교구 전시회 개최 목원대학교총장 권혁대)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관)1층 전시실에서 유아교육과(학과장 백은주)가 주최한 '제7회 교구 전시회'가 지난 11일(화)부터 열리고 있다.

기자 수첩

계룡시의회 끈이지 않는 '갑질'



주선웅 사회부장

계룡시의회의 2018년 1차 정례회... (기사 일부)

이날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이 있는 날이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대회진행 협조로 각종... (기사 일부)

기장과 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기사 일부)

1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장애인 체육대회는 계룡시의 큰 행사이다... (기사 일부)

그러나 A의원은 장애인체전 탁 구 경기를 참가 한다는 이유로 심의에 참석조차하지 않고 B의원에... (기사 일부)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일이다... (기사 일부)

또한 A의원은 각 언론사의 집행부 홍보비예산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가지고 있으며 계룡시 홍보비... (기사 일부)

미치 기자들이 홍보비에 목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모든 의원들의 생각처럼 말하고 있다고... (기사 일부)

계룡시를 홍보하는데 의회가 불만이 있으면 홍보예산을 전체 삭감하면 될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기사 일부)

홍보비를 삭감 한다고 하여 기자들이 겁먹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기사 일부)

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 일부)

과연 의원들도 지난 지방선거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깨끗했는지 의회의 모든 업무추진비를 명확하게... (기사 일부)

의원사무과에 의원들의 개별 인더뷰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기사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룡시 지역발전에 앞장서... (기사 일부)

의원님들 자신들은 진정 청렴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기사 일부)

건강 칼럼

가을 마라톤의 계절



김경훈

대전비로세움병원 관절센터 원장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절이다... (기사 일부)

마라톤은 평소 꾸준한 연습을 해온 선수들에게도 힘든 운동이다... (기사 일부)

운동 부하 검사, 준비운동 필수 (기사 일부)

40대 이후에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마라톤 대회 중에... (기사 일부)

달리기 전 준비운동은 본 운동보다 더 중요한 필수 준비운동이다... (기사 일부)

땀 발산 잘 되고 폭신한 운동화, 오르막 보다는 내리막 조심 (기사 일부)

마라톤은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므로 복장이 중요하다... (기사 일부)

흡수하는 능력이 50% 가량이나 감소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기사 일부)

마라톤 코스는 오르막과 내리막 길이 있게 되는데 오르막 보다는 내리막에서 달리기할 때 무릎에... (기사 일부)

가장 흔한 무릎부상 일명 '터너스 니' 조심 (기사 일부)

마라톤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상으로는 터너스 니(Turner's knee) 발목... (기사 일부)

기고

건강을 책임지는 슈퍼푸드 토마토의 색소



임선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채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사 일부)

성분이 많아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기사 일부)

토마토가 이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사 일부)

토마토의 붉은 색을 나타내는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기사 일부)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기사 일부)

이와 같이 몸에 좋은 토마토의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색소인 안토시아닌을... (기사 일부)

와 Ros1 유전자로 보라색 토마토를 개발하였다... (기사 일부)

이와 같이 몸에 좋은 토마토의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색소인 안토시아닌을... (기사 일부)

세종시, 메르스 대응 총력...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소방·경찰·의사회 참가 분야별 사전대응 방안 수립·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기사 일부)

시는 11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보건소, 경찰, 소방,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기사 일부)

산방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대응 추진상황 공유 ▲의사회와 약사회의 긴밀한... (기사 일부)

12일 기준 세종시의 경우 밀접접촉자는 없는 상태로 상황이 양호하지만, 메르스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기사 일부)

거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 일부)

시는 이틀 일삼접촉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열과 호흡기 증세를 체크하는 등... (기사 일부)

이와 함께 시는 초기단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메르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시민들이 평소 지켜야 할 수칙과 의심 증상을 보일 때... (기사 일부)

특히 시는 이번 민·관 협력 대응... (기사 일부)

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분야별로 사전 대응방안을 수립해 메르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사 일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은 "유관기관 간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한다면 민간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모든 유관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일부)

김태선 기자

사설

하루 116명이 10억 원 보이스피싱 당하는 현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기사 일부)

보이스피싱은 특별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나 속아 넘어갈 만능지능적이다... (기사 일부)

대전시 민방위 업무발전 '우수기관' 선정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방위업무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사 일부)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민방위대 교육 훈련을 통한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한 대전시 노력의 결실이다... (기사 일부)

특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그동안의 폐쇄적... (기사 일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등 비상사태의 대응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사 일부)

대전시 주은영 비상대비과장은 "이번 수상은 평소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모든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이영호 기자

대전소방, 안전한 추석 '화재예방대책' 총력

대전시 소방본부는 추석연휴기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사 일부)

소방본부는 우선 전통시장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예찰 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기사 일부)

특히, 소방관서장이 직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구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기사 일부)

또한, 많은 귀성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역과 서대전역, 북학터미널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 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기사 일부)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78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부주의 등 안전사고 요인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내 주변에서부터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이영호 기자

보령시, 제3회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 개최

보령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천체육관에서 제3회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 '讀(독)·讀(독): 마음을 두드리는 도서관'을 개최한다... (기사 일부)

이번 행사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사 일부)

행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오전직은도서관 우물샘터란 수강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서관 열린 유공자 표창, 책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책과 함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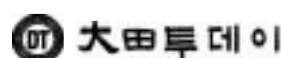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나만의 책 만들기+증강현실 ▲ Talk- Talk- 영어도전기 ▲음악놀이 ▲글로벌 빌리지: 세계문화체험 ▲스크린으로 옮겨진 베스트 셀러 ▲공기대포: 과학원리 체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과 실크스크린 에코백 및 경극가면 부채 만들기 ▲가죽 팍팍 및 뜨개 목걸이 ▲캐릭터 종이접기 등 책 내용과 연계되는 2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사 일부)

또한 대전체육관 중앙무대 앞에서 추천도서로 내용으로 OX퀴즈 맞추기 ▲헨젤과 그레텔, 금도끼 은도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세 편의 동화책 내용을 마술로 보여주는 마술책방 ▲책에 관련된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 감성적으로 책을 이해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 (기사 일부)

여장현 교육체육과장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프로그램은 나만의 책 만들기+증강현실 ▲ Talk- Talk- 영어도전기 ▲음악놀이 ▲글로벌 빌리지: 세계문화체험 ▲스크린으로 옮겨진 베스트 셀러 ▲공기대포: 과학원리 체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과 실크스크린 에코백 및 경극가면 부채 만들기 ▲가죽 팍팍 및 뜨개 목걸이 ▲캐릭터 종이접기 등 책 내용과 연계되는 2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사 일부)

보령=김태선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phone numbers, addres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대전투데이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